

학제간 협력을 통한 제주지역 인문학연구

이 영 호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중문과 교수(교신저자)

정 창 원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공동저자)

김 치 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공동저자)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인문학은 주로 제주문화의 원형을 찾거나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제주의 고유성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문학과 민속학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제주지역의 척박한 연구 환경에서 실제로 제주문화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그동안 연구되어 왔던 내용을 기초로 '탈경계의 시대'라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제주의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의 연구소가 융복합적 측면에서 제주의 현재를 검토하고, 미래의 비전을 조명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 하겠다.

제주지역에는 역사·문학·철학적 접근을 가능케 하면서 시대적 배경을 담은 자료(지방지 및 문집, 금석문류 등)가 남아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인문학 각 분야에서의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주지역에 관해 기술된 각종 지방사 관련 자료는 단순한 사료적 가치를 뛰어넘어 국문학·역사학·민속학·철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복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인문학에서 제주의 현재를 진단하고 현재와 미래에 지향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지향점과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의 열악한 연구환경에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는 바로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대학의 본래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문학 관련 연구 분야를 총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 내 인문학 관련 연구소이다.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 우선 인문학 관련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인문학연구소가 주축이 된 각 전공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향후 공동연구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2011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해 연구되어, 2012년 제주대학교 개교 60주년기념 연구소 통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한 것입니다(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in 2011).

학제간 협력을 통한 제주지역 인문학연구

1. 서론
2. 연구 현황과 과제 검토
3. 제주지역 인문학 연구의 방향
4. 지역 인문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5. 결론

1. 서론

1) 연구 목적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인문학은 주로 문학과 민속학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주로 민속학자나 제주출신 학자들이 수행해 온 제주문화의 원형을 찾거나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제주의 고유성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는 제주지역의 척박한 연구 환경에서 실제로 제주문화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

우선 제주문화를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 보는 학자들은 제주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측면에서 제주적인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제주사회를 주변부이면서 열린사회로 보고 제주도를 연구한 학자들은 제주도의 사회 문화적 현실을 진단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까지의 제주지역의 인문학 연구가 이런 성과를 보여 왔다

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그동안 연구되어 왔던 내용을 기초로 ‘탈경계의 시대’¹⁾라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의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우리대학의 연구소가 융복합적 측면에서 제주의 현재를 검토하고, 미래의 비전을 조명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 하겠다.

한편 제주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역사·문학·철학적 접근을 가능케 하면서 시대적 배경을 담은 자료(지방지 및 문집, 금석문류 등)가 남아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인문학 각 분야에서의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주지역에 관해 기술된 각종 지방사 관련 자료는 단순한 사료적 가치를 뛰어넘어 국문학·역사학·민속학·철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복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인문학에서 제주의 현재를 진단하고 현재와 미래에 지향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지향점과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탈경계 이론은 본래 ‘계몽’에 초점을 맞춘 근대정신의 한계를 반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근대-이후의 복잡다단한 정신사적 시도들이 모두 이 탈경계 이론에서 파생된 것도, 그것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로컬리티 담론이 주목받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탈경계이론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론적 바탕은 구조화론(structuration)과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에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1938~)과 로이 바스카(Roy Bhaskar, 1944~), 앤드류 세이어(Andrew Sayer)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연적 변이, 사건, 관계, 사람에게 주목한다고 하는 그 이상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가는 인문학적 반성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김치완의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탐라문화』 제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182-191쪽)를 참조할 것.

2) 연구 범위와 방법

1996년 1월부터 제주도연구회가 제주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이래 제주학은 섬이라는 지역적 공간성을 기초로 다양한 지역학적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역학으로서 제주학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및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한국의 다른 어떤 지역과도 구별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제주도가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제주도를 하나의 완결된 독자적인 문화체계로 보는 시각, 한국문화의 고형(古型)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로 보는 시각, 중심에 대한 주변사회이면서 동시에 개방된 문화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런 시각차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혼종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도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주지역의 인문학 연구의 이런 복잡성을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어문학·역사·철학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기존의 연구의 현황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연구성과의 미흡한 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학제간 협력 과제와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화를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문학·역사·민속·철학적 가치를 지닌 몇 종류의 자료(지방지 및 문집, 금석문류 등)를 수집한다. 이 중 인문학 제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별 정리한다. 선별된 자료를 대상으로 각 분야에서 초보적 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자들 간의 협력연구를 통해 종합적 시각에 입각한 결과물의 도출한다.

선별된 자료에 대해 문학·역사·민속·철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면서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을 가한다.

2. 연구 현황과 과제 검토

1) 연구 현황

제주에서 수행되는 학문연구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지역적 공간성을 기초로 한다.²⁾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및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한국의 다른 어떤 지역과도 구별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전제는 제주도가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데서 출발한다.³⁾ 그런데 이 전제 때문에 ‘특수성’이 과장되거나, 그것에만 주목해서 인문학적 보편성이 부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점은 제주대학교의 인문학 분야 연구기관인 탐라문화연구소와 인문학연구소의 연구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제주지역에서 제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몇 있지만,⁴⁾ 제주대학교 내에서는 1967년 3월 제주대학 부설 제주도문예연구소로 인가되었다가, 1982년 제주대학교의 종합대학 승격과 함께 법정연구소가 된 탐라문화연구소가 전담하고 있다. 탐라문화연구소는 ‘제주도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의 제영역에 걸친 분야별 연구 및 분야간 협동연구를 함으로써 제주지역사회의 발

2) 최병길 외,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濟州島研究』 제15집, 濟州學會, 1998, 114쪽.

3) 유철인, 「지역연구와 濟州學: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濟州島研究』 제13집, 濟州學會, 1996, 38-46쪽.

4) 대표적인 기관으로 제주학회를 들 수 있다. 사실상 1996년 1월부터 濟州島研究會가 濟州學會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濟州學의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濟州學會에서는 명칭 변경 전인 1984년부터 해마다 1권씩 『제주도연구』를 간행하다, 2000년부터 1년에 두 차례씩 간행했는데, 2004년 26호 이후에는 간행되지 않고 있다(조성윤, 「지역 연구 모델로서의 제주학의 발전 방향: 『탐라문화』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33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88-89쪽).

전에 기여하고 당해 분야의 학술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탐라문화연구소는 법정연구소가 된 이래, 매년 1회씩 『耽羅文化』를 발행하다가 2004년부터는 연2회 발행하는 중인데, 지난 2008년에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2012년 현재 40호를 발행하고 있다.⁵⁾ 1982년에 『耽羅文化』를 발행할 당시에는 '연구소는 제주도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의 제영역에 걸친 연구를 통하여'라는 규정(제2조 목적)에 따라, 모두 9개의 분야를 설치하였다.⁶⁾ 그런데 1997년에 '연구소는 제주도의 문화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로 기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연구분과를 모두 7개의 분과로 통폐합하였다.⁷⁾ 개정 및 분과조정의 이유로는 '연구분야를 명료화하고 학제간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耽羅文化』가 지역학 중에서도 특히 인문학 중심의 학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⁸⁾

40호까지 발행된 『耽羅文化』에는 일반논문이 285편, 조사보고서가 10편, 기획특집논문 91편, 자료 및 해제가 15편으로, 총 401편의 논문·보고서·자료가 실렸다.⁹⁾

-
- 5) 김치완,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192-193쪽.
- 6) 『耽羅文化』 창간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241-242쪽.
- 7) 『耽羅文化』 1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518쪽.
- 8) 조성윤은 인문학 분야의 게재물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특히 인문학 분야는 언어, 문학, 민속, 역사 분야가 골고루 증가한 반면, ... 물론 이것은 대학 내의 연구소 분포와도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과학연구소, 법과정책연구소, 관광과 경영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소가 생겨나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 (조성윤, 앞의 글, 93쪽).
- 9) 특집·기획논문 및 조사연구의 경우 학술회의 발표 논문 아래의 종합토론도 게재물 1건으로 취급하였다. 하지만 예컨대 제4호에 게재된 기획논문처럼 '解放後 濟州研究概觀(Ⅲ)-社會科學分野'라는 제목 아래, 6명의 필자가 각각의 분야를 맡아 집필한 경우에는 전체를 논문 한 편

<표 1> 『耽羅文化』 게재물 유형별 현황

논문	분류					논문	분류				
	일반 연구	조사 보고	기획 특집	자료 해제	게재 편수		일반 연구	조사 보고	기획 특집	자료 해제	게재 편수
창간호 (1982.2)	7		1		8	제21호 (2000.12)	6		4		10
제2호 (1983.2)	8	1	1		10	제22호 (2002.2)	6		5		11
제3호 (1984.2)	4	2	5		11	제23호 (2003.2)	6		5		11
제4호 (1985.1)	6	2	1		9	제24호 (2004.2)	8				8
제5호 (1986.5)	6	3			9	제25호 (2004.8)	7				7
제6호 (1987.2)	9	1			10	제26호 (2005.2)	6				6
제7호 (1988.2)	10			2	12	제27호 (2005.8)	6				6
제8호 (1989.2)	5	1			6	제28호 (2006.2)	8				8
제9호 (1989.3)	9				9	제29호 (2006.8)	9		1		10
제10호 (1990.2)	10				10	제30호 (2007.2)	8				8
제11호 (1991.2)	12				12	제31호 (2007.8)	5		5		10
제12호 (1992.2)	11			6	17	제32호 (2008.2)	7				7
제13호 (1993.2)	5		6		11	제33호 (2008.8)	6		4		10
제14호 (1994.2)	4		6	4	15	제34호 (2009.2)	4		3		8
제15호 (1995.2)	5		5	1	11	제35호 (2009.8)	5		6		11
제16호 (1996.2)	7		4	1	12	제36호 (2010.2)	5		5		10
제17호 (1996.12)	6		4		10	제37호 (2010.8)	7		9		16
제18호 (1997.12)	14				14	제38호 (2011.2)	6		4		10
제19호 (1998.12)	8				8	제39호 (2011.8)	7		5		12

제20호 (1999.12)	10			10	제40호 (2012.2)	7		3	10
-------------------	----	--	--	----	------------------	---	--	---	----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기 2월과 8월 연2회 발행하기 시작한 제24호부터 게재편수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제33호부터는 호당 10편 이상 꾸준히 게재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창간호부터 제8호까지는 조사보고서가, 창간호부터 제16호까지는 자료 및 해제가 실리다가, 점차 기획특집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획특집 논문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창간호부터 제13호까지는 주로 제주도와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는 언어·문학, 민속·예술, 사회·문화분과에서 제주의 특성으로 손꼽을 수 있는 주제를, 제31호에서 제40호까지는 『탐라문화』가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제33호를 제외하고는 제주를 다른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주제를 다룬 것으로 분석된다.¹⁰⁾

탐라문화연구소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95년에 설치된 인문과학연구소는 '인문학 분야의 학제간 공동 연구와 인문학 영역별 개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¹¹⁾ 탐라문화연구소가 지역학을 선도하는 대학 내 법정연구소로서 주목받은 데 비해, 인문과학연구소는 제주대학교의 구조 개편에 따라 2001년 9월 1일자로 탐라문화연구소에 통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던 중 2008년 12월에 '인문과학 분야 연구 영역의 전문화

으로 취급했다.

- 10) 이와 관련해서는 '김치완,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 앞의 책, 194-196쪽의 분석 내용을 참조할 것.
- 11) 1995년에 설치 당시 인문과학연구소 규정(1995. 4. 11. 규칙 제304호)이 제정되었으나, 해당 문건을 입수하지 못하여 『인문학연구』 제9집의 후기를 참조하였다(같은 논문집, 157쪽).

와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인문과학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연구소의 기능으로 정하고,¹²⁾ 이듬해 再開所 하였다. 인문과학연구소의 논문집인 『인문학연구』는 본래 1995년 연구소가 설치되면서 제1집을 발간한 이래 16편 내외의 논문을 실으면서 지속되다가 2000년에는 각각 10편씩의 논문이 실린 제6집과 7집이 발간되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2001년 2월 제8집이 나온 뒤, 탐라문화연구소에 통합되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6-7편이 실린 논문집으로 명맥만 유지하다가 2005년에는 그나마도 중단되어 버렸다. 2009년에 연구소가 再開所 되면서 『인문학연구』의 복간이 추진되어, 2012년 1월에 11편의 논문이 실린 『인문학연구』 제12집으로 복간호를 발간하였다.

<표 2> 『인문학연구』 계열별 게재 현황

논문	분류							논문	분류						
	어문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번역기타	게재편수	어문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번역기타	게재편수		
창간호 (1995.2)	12		3	2		17	제7집 (2000.2)	5		2		1	10		
제2집 (1996.2)	14		1	1		16	제8집 (2001.2)	6				1	7		
제3집 (1997.2)	16	2	3			21	제9집 (2002.3)	7					7		
제4집 (1998.1)	12		1	1		14	제10호 (2003.2)	3	3				6		
제5집 (1999.5)	12	1				13	제11호 (2004.2)	3		1		2	6		
제6집 (2000.2)	7	1			2	10	제12호 (2012.1)	7	2	1		1	11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간호부터 2000년 제7호에 이르기까지는 어문학 계열의 논문이 매년 평균 13편으로 77.3%

12)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2008.12.3. 규칙 제808호.

를 차지했다. 이후에도 편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문학 계열 논문을 위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의 편제를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은 1982년 종합대학 승격과 함께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본어학과, 사학과 등 5개로 구성하여 출발되었다가, 1987년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와 미술교육과가 각각 음악학과 미술학과로 전환되어 편입되었다. 1988년에는 사회과학대학이 법정대학과 경상대학으로 분리되면서 사회학과가 편입되었고, 1992년 중어중문학과가 신설되었다. 이렇게 보면 1995년에 창간호를 발행할 당시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에는 어문계열 5개 학과와 역사계열 1개 학과, 사회계열 1개 학과, 예능계열 2개 학과가 편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논문을 연구결과물로 하지 않는 예능계열 2개 학과를 빼면, 어문학계열이 71.4%를 차지하므로 실제 실린 논문 수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8년 3월에 철학과가 신설되었고, 2008년에 예능계열 2개과가 예술학부로 독립하였으므로, 2012년 현재에는 어문계열 5개 학과, 역사계열 1개 학과, 사회학과 1개 학과, 철학과 1개 등이 인문대학에 편제되어 있다. 그래서 2012년 1월에 복간된 제12집의 경우에도 어문학 계열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골고루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주대학교에 철학과가 신설된 지 14년째이지만, 『인문학연구』에는 창간호부터 철학분야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제12집까지 모두 12편(전체 138편 중 8.6%)이 실렸다. 이 편수는 지금까지 40호가 발행된 『탐라문화』에 게재된 철학분야 연구논문 총편수인 10편(전체 401편 중 2.49%)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한 수준이다. 이 점은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의 철학분야 연구가 지역학보다는 인문학에 기초를 두고 진행되었음을 시사한

다.¹³⁾ 특히 철학과의 설치되기 전인 창간호부터 철학분야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이때 사학과와 독일학과에 소속된 철학전공 전임교수들이 논문을 실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문과학연구소는 '인문학 분야의 학제간 공동 연구와 인문학 영역별 개별 연구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지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탐라문화연구소와 연구자 및 연구 범위가 중첩되면서 한때 탐라문화연구소에 통합된 바 있다. 그리고 지역학으로서 제주학을 기반으로 하기 곤란한 외국어문학 계열의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내 기관이 전무하다는 점 때문에 再開所 되었고, 논문집인 『인문과학연구』도 복간되었다. 그러나 '인문과학 분야 연구 영역의 전문화와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인문과학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연구소의 기능이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철학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학과 인문학 연구에 있어서 『탐라문화』와 『인문학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과제 검토

앞 절의 연구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소에서 진행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 몇 가지로 검토될 수 있다

13)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에 소속된 교수들의 전체 논문 실적 중 교내 연구소 논문집에 투고한 비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탐라문화』가 그동안 많은 논문을 실었던 것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탐라문화』를 지역학 연구지, 『인문학연구』를 인문학 연구지로 단순 구분하여 의미부여한 것이다.

① 文史哲 관련 고전문헌의 정리와 국역

- 미래 연구의 기초연구와 지식기반구축
- 고급 인문학 지식의 대중 확산
-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원시자료의 구축

② 사회적 역할

- 지역사회 기관(도청 시청 등)의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자문과 제언 ; 예를 들어 중국문화와 중국인들의 성향을 분석 이를 관광과 쇼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 인문학의 차원에서 사회적 병리현상(자살 우울 고독 소외)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

③ 인문학의 대중확산

-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인문학적 주제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콘텐츠 개발 보급
- 인문학 확산 방안의 모색 예를 들어 강연이나 강의 보다는 체험, 참여, 실습 등을 통해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

3. 제주지역 인문학연구의 방향

1) 어문학을 통해 본 제주지역의 인문학연구

지방이라는 지역적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언어이지만, 제주어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순수 학문적 연구에 치우쳐 있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문적인 논문발표는 물론 제주어 사전¹⁴⁾등도 출간된 바 있다. 그러나 제주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과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제주어와 관계있는 몽골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상호 비교 연구는 제주라는 지역을 넘어 동아시아의 문화적 교류를 밝히는 데 주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연구자들의 독자 연구는 물론 상호 협력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지역의 어문학연구 중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기초자료의 정리와 해석이다. 기초자료의 연구에는 제주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고전자료의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서간·칙서·임명장·문집 등의 자료를 발굴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濟州 속의 耽羅 심재집』¹⁵⁾ 같은 책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기초 자료들은 무엇보다도 현대어로 해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학 역사 철학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에 산재하는 제주와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작업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초작업 과정에서부터 文史哲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이 절실하다.

제주에는 3000여 개가 넘는 신화가 있다고 하고 각각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양영수는 “신화를 바라보는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신화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백안사하는 태도이다.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화에 담긴 깊은 의미를 캐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

14) 현평효·강영봉,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제주대학교 국어연구원, 2012.

15) 金錫翼 저 오문복의 5인 역, 『濟州 속의 耽羅 심재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의 빈약함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¹⁶⁾”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속인과 신당에 관계된 이야기로 경시되었던 신화가 이제는 인간을 상상력을 증가시킬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간 신화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지만¹⁷⁾ 학술적이며 전면적인 연구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제주신화 하나하나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학술적인 진일보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문학의 재창조의 관점에서 제주신화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관광 등에 사용하고 연극 예술 등의 문화에 응용하여 문화콘텐츠의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상술한 어문학의 기초연구를 통해 얻어진 성과로 제주지역을 바로 알고 제주문화의 인식이 증대시키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초 자료의 정리와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관광사업은 현장에서 실용적인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의 양산이다. 다음으로는 음악 전시 공연 등 문화적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전파해야 한다. 인문학은 다양한 사고가 집합된 학문이다. 대규모도 주요하지만 소규모의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이해 소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런 행사의 일종으로 시 낭송회, 인간에 대한 이해 등의 행사가 해당된다. 또 고전 윤독회를 운영하여, 국역이 아닌 원전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학문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고 대중에게 찾아가는 인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 역사 철학 등의 전문가 해설가들이 연합하여 강

16) 양영수, 『세계 속의 제주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15쪽.

17) 양영수, 『세계 속의 제주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허남춘, 『제주도본풀이와 주변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연·체험·현장답사 등과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된다.

2) 철학을 통해 본 제주지역의 인문학 연구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의 각 학과가 모두 그렇지만, 특히 '제주에서 철학한다.'는 것은 인문학과 지역학의 두 가지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철학은 인간 보편적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학문(Universal Science)으로서 그 자체로 인문학 범주에 속하지만, 제주라고 하는 현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래 철학은 東西洋을 막론하고 존재의 근거를 물으면서 그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Sitz im Leben)에 대해서 묻는다.

인문학으로서 철학은 인간다움(Humanitas)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오늘날 인문과학을 뜻하는 'Studia Humnitatis'는 서양 중세에는 세속적인 문예·활동을 뜻했지만, 19세기 이후로는 神의 영역과 구분되는 '세속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대신, 오히려 당시 발달하던 자연과학과 선긋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인문학으로서의 철학은 인간과 인간의 삶을 자연과학의 대상이 아닌 인간학적 관심사와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이에 비해 지역학으로서 철학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역학이라고 할 때는 19세기 이후로 선긋기가 이루어졌던 자연과학분야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학으로서의 철학은 대개 중심/경계라는 지역적 위계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이념,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하되,

18) 김치완, 「석주명의 제주도 자료에 비친 제주문화 -『제주도수필집』에 나타난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환경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석주명 선생 탄생 103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을 조명하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181쪽.

주로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좁다.¹⁹⁾ 그러므로 지역학으로서 철학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넓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에서 철학하기'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인문학이라는 점에서는 인간 보편적 이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주제의 철학적 담론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지역학이라는 점에서는 제주의 인문으로 그 담론의 주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면서도, 오히려 제주의 자연까지도 담론의 주제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제주의 인문적 환경을 주제로 할 때는 인문학 전분야의 학제간 협력이 요청되고, 제주의 자연적 환경을 주제로 할 때는 인문학을 넘어 학문 전분야의 학제간 협력이 요청된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제주에서 철학하기와 서울에서 철학하기가 다를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철학하기'가 지역적 특수성에 주안점을 둘 때 철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보편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본래 지역학과 인문학이 중첩되면서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제주라는 특수한 지역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파생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철학 분야만이 아니라, 인문학 전반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때 다음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인문학은 인간다움을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삶의 모든 조건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시간 속

19) 박규택은 「로컬리티 연구의 동향과 주요 쟁점」에서 각주를 통해 “로컬리티 연구의 이론적 틀로 포스트모더니즘도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지만, 본문에서는 로컬리티의 토대이론을 구조화론과 비판적 실재론으로 특정하였다(『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122쪽).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학으로서의 철학은 한편으로 범위가 상당히 넓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좌표와 공간 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좌표를 입체적으로 고찰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력을 지닌다. …… 인문학은 보편성을 지향하되 구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²⁰⁾

인용문의 ‘인문학’을 ‘철학’으로 대체하면 향후 제주대학교에서 이루어질 철학 분야의 연구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철학은 그 자체로 인간다움을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삶의 모든 조건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철학은 시간 속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좌표와 공간 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좌표를 입체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생명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철학은 보편성을 지향하되 구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세 번째는 지역학과 인문학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현재 제주대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철학은 인간다움을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삶의 모든 조건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지역학의 토대 위에서 철학은 로컬인의 인간다움을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삶의 조건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한편 인문학의 토대 위에서 철학은 로컬인이 스스로 훼손하는 인간다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그것을 극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철학은 역사적 좌표와 사회적 좌표를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학의 토대 위에서 철학은 역사적 좌표와 사회적 좌표의 탐구를 위해 이미 연구되었던 지역 기반의 문학과 역사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종합 검토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지역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문학의 토대 위에서 철학은 역사적 좌표와 사회적 좌표의 탐구를 위해 제주 지

20) 김석수, 「구체적 보편성과 지방, 그리고 창조학으로서의 인문학」, 『사회와 철학』 제8호, 사회와 철학연구회, 2004, 209-210쪽.

역에 국한된 논의를 확장하여, 세부 전공에 따른 심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대학교에서 지역학은 탐라문화연구소, 인문학은 인문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로서는 탐라문화연구소나 인문과학연구소가 사실상 인문학 전공자들이라는 중첩되는 연구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을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의 편제에 따르면, 인문학 전공자들의 대부분이 지역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어문학 계열 전공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기초로 하여 둘로 나눈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탐라문화연구소와 인문과학연구소로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지역학을 토대로 한 탐라문화연구소는 外延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지역학은 특별한 로컬리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상 지역 밖에서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적 정체성을 우선 분명하게 밝혀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로컬리티를 확대 재생산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는 인문학 분야를 넘어서 자연과학의 제 분야로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본래 지역학이란 지역적 한계가 뚜렷한 반면에, 지역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모두 그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제간 연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에서 철학하기는 우선 역사학과 어문학 분야는 물론,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미 생산된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주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것이 공유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내에 있어서는 자연과

학의 제 분야와 학제간 연구 및 융복합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그 이념형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인문학을 토대로 한 인문과학연구소는 內包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 분야의 학제간 공동 연구와 인문학 영역별 개별 연구 활동’이라는 목표는 상당히 모호하다. 2012년 현재 철학·역사학연구부, 어문학연구부, 예술학연구부, 교육학연구부로 조직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술학연구부와 교육학연구부는 현재 인문대학의 편제와는 불일치한다. 따라서 이 두 연구부는 이념적으로는 인문학에 속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열별로 어문학·역사학·철학 등 세 분과로 재편하거나, 지역별로 국학·동아시아학·유럽학·영미학 등 세 분과로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문대학이 계열별로 편제된 것을 생각할 때 ‘인문학 분야의 학제간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는 지역별로 재편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가령 이렇게 재편된다면, 철학은 각자의 세부 전공을 좀 더 심화하면서, 각 분과별 어문학과 역사 연구와 연계하여 그 이념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인문대학 사학과와 제주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역대문집총서 목록 색인사업의 예만 보아도 그렇다.

이 사업은 홍콩시티대학교(City University of Hong Kong)와 UC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그리고 제주대학교가 입력 및 감수 등의 실질적인 작업을 맡고,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와 미디어한국학(Media Korean Studies)이 자료 제공 및 온라인 베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제주대학교는 현재 중문으로 입력된 자료를 한글화하고, 감수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학과 단위로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므로,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전담하되, 동아시아학연구부에서 어문학·역사학·철학 전공자들이 전면 지원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도 이

사업이 대학홍보효과 및 국학과 인문학 분야 경쟁력 강화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인문과학연구소를 주관 기관으로 하여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학 분야는 향후 인문학과 지역학 양 측면에서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 분석하면서, 제주의 지역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제주학을 기반으로 하기 곤란한 외국어문학 계열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 지역의 이념형을 분석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한편으로, 제주대학교는 물론 제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간다움을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삶의 모든 조건'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3) 역사학을 통해 본 제주지역의 동아시아 연구

(1) 한국학과 제주학, 제주지역의 기존연구 현황

한국학은 한국인이 오랫동안 쌓아 온 역사적 유산을 정리하고 평가함과 동시에 아시아 세계에서 한국이 갖는 아시아적 보편성과 한국만이 갖는 한국적 특수성을 분명히 밝혀내고, 나아가서 한국이 갖는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만이 갖는 특수성을 밝혀서 한국의 正體性을 확립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한국학의 범주에는 한국의 역사·철학·문학·민속 등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외국의 역사·문화·철학을 연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피차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내는 비교학적 방법의 연구를 함으로써 한국의 정체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의 한국학을 한국의 것만을 연구하려는 협의적 태도를 벗어나서 세계 속에서 한국 역사 문화의 위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학의 범위

에는 한국과 인접한 중국·일본 등은 물론이고, 역사·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범주를 뛰어넘어 근세 이후의 유럽지역과 미주지역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한국과 관계가 있거나, 한국과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²¹⁾ 위와 같은 제 사항들을 종합하면 한국학이란 한국의 역사·문화·언어·사상·민속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나아가서 이와 교류 또는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나라의 역사·문화를 연구하여 비교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학문이다. 즉, 한국의 역사·문화를 세계의 역사 문화 중심에 놓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역사적으로 보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그 수준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독립된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전통적인 학문은 일제시대를 통하여 단절되었고, 해방 이후의 혼란과 6·25 전쟁 등으로 경제적인 빈곤이 겹쳐서 우리 자신을 돌아 볼 여유가 없이 서구문화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 것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²²⁾ 동시에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여 단기적인 업적이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등한시 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이고, 단절되어 있는 한국학분야의 연구는 연구자들조차도 사회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다. 따라

-
- 21) 한국사학사학회 편, 『21세기 역사학 길잡이』, 경인문화사, 2010, 55쪽. 역사학이라는 좁은 분야를 예를 들더라도 한국의 역사학에는 사실 한국에서의 동양사 및 서양사 연구도 포함된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학의 전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 22) 한국사학사학회 편, 위의 책, 71쪽. 조성일은 개항 이후,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학문은 기본적으로 단절이었으며, 이 단절을 넘어 실학적 전통에 입각하여 한국학에 토대하여 21세기에 “우리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건설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우리의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의 결과도 다음과 같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첫째로 역사·언어·문화·민속에 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대학·대학원도 일반적인 학문 분류에 의거하여 편제되었던 이유로 사학과·철학과·국어국문학과·문헌정보학과·중어학과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 말미암아 한국학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교육·연구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 교육·연구의 성과도 사실상 종합적인 결론이나 정체성을 밝혀내는데 미흡하였다.

둘째로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학 자료의 발굴과 정리가 가장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 없이 연구자가 개별적인 관심에 따라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종합적인 시각을 갖추지 못한 단편적 연구에 머물고 있다. 그리하여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잘 알려진 몇몇 사료에 국한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²³⁾.

셋째로 한국에 직접 일어난 부분만을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 세계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의 지평을 확대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한국 문화를 세계문화와 비교하여 한국문화의 세계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한국학의 연구는 자칫 국수주의적 경향을 내포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해²⁴⁾ 한국학의 고립화로 이어졌고 세계화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넷째로 한국학 연구자들은 순수학문을 고집하고 그 범위를 벗

23) 신승운, 「한국문집정리의 측면에서 본 『退溪學資料叢書』 간행의 의미」, 『退溪學』 제17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21쪽.

24) Falk Pingel 지음, 한운석 옮김, 「교과서 연구와 수정에 관한 유네스코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2010, 33-44쪽. 전후 세계의 많은 문제들은 초국가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문제들은 두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구적 관점을 통한 새로운 논제와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어나지 못하여, 한국학의 학문적 연구 성과가 문화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산업은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내용적 측면에서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즉, 새로운 문화산업도 한국학적 연구결과를 문화산업에 연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용의 부실을 초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학 관계 연구자들의 진로가 크게 좁아져서 한국학 연구자의 숫자를 점점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학 연구는 담보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은 한국학 교육·연구의 현황으로 볼 때, 전면적이면서도 새롭고 종합적인 계획 아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한국학은 현재의 대학·대학원의 편제와 같이 일반적인 학문분류 방식에 따른 학과의 분화로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역사학·철학·문학·어학·민속학 등을 연결하는 학제적 편제, 즉 한국학과 또는 한국학협동과정²⁵⁾을 신설하여서 교육·연구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한국학 연구자들이 여러 학문분야를 아우르며 참여하고 있는 학회²⁶⁾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성과들이 결집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와 같은 학회들의 활동을 통해 결집된 융복합적 지향성을 실제 교육 및 연구과정을 설계하는데 참고하고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현재 한국학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료가 종합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이어서 종합적 연구가 미흡하므로, 한국학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25) 실제 제주대학교의 경우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학문간 융복합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와 개선은 계속 시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6) 이와 같은 성격의 국내 학회로는 역사민속학회, 역사문화학회 등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기반을 구축하여, 교육과 연구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적 역량이 아닌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한국학의 지평을 확대하여 한국에서 벌어지고 한국인이 일으킨 사건만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협의적 연구태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협의의 한국학뿐만 아니라 한국과 연결된 이웃나라, 다시 말하면 아시아 여러 국가는 물론, 유럽이나 미주 국가의 역사·문화 현상도 우리 문화와의 교류와 영향 등을 고려한 비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한국을 핵으로 한 세계의 역사와 문화의 교육·연구라는 광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넷째로 한국학의 교육·연구업적을 문화산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21세기 문화산업의 내용을 충실히 다져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학 연구 인력을 문화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학의 발전을 통한 한국의 정체성 수립을 도모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 한국학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학문분야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대중문화의 소재 내지는 박물관을 위시한 교육기관에서의 자료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학의 교육·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산업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래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위상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²⁷⁾ 상술한 바의 한국학이라는 전체적 관념에서 '제주'라는 공간성을 특화시켜 주입하면 제주학의 연구범위와 의미, 그리고 발전방향이라는 구성으로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바로 제주도를 지역기반으로 발표된 연구성과에 대한 회고와 전망일 것이다. "제주학"이라는 지

27) 정창원, 「한국학연구와 문집정리의 필요성」, 『한국학연구』 제2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2, 435-439쪽.

역연구개념의 용어는 이미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규모의 학술단체인 제주학회가 이미 그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학술연구성과²⁸⁾ 또한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지역연구의 중심을 이루는 대학의 연구기관으로는 탐라문화연구소와 인문과학연구소가 연구의 중추를 담당²⁹⁾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인문과학연구소가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인문학적 측면에서 제주의 현재를 진단하고, 아울러 미래에 지향해야 할 바를 다차원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상술한 한국학연구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제주대학교의 인문학 분야 연구에서 보이는 역사학 분야의 연구 경향을 간략하게 회고하고 분석해 보자.

제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기관지인 『인문학연구』는 1995년 제1집을 창간호로 2004년 제11집까지는 중단없이 발간되었다. 학교의 정책변화에 따른 연구소 통폐합으로 인해 몇 년간 발간되지 못하였다가 2012년 1월 복간호인 제12집이 발간되었다.

앞서 제2장에서는 <표 2>부분에서 계열별 분류에 의한 『인문학연구』의 논문 게재 현황을 통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역사학적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논문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³⁰⁾ 순수하게 역사학적 측면에서 기술된 논문으로 판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5집(1999년 발간)에 이르러 서양사 분야의 두 편 논문(문혜경, 「古典期 아테네 비극에 나타난 여주인공」들 / 한기영, 「1948 독일혁명」)이 등재가 되었고, 제6집(2000년 발간)에 한국사 분야의 논문(진영일,

28) 제주학회의 학술연구성과는 인문학을 포함한 제 분야에 걸쳐 있다.

29) 조성윤, 「<탐라문화> 연구의 발전 방향 ; 지역연구모델로서의 제주학의 발전방향」, 『탐라문화』 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년, 82쪽에 의하면, 제주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모여 조직한 기구는 1967년에 시작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와 1978년에 시작한 제주학회, 그리고 1998년에 시작한 제주학 연구소가 있다.

30) 이는 순수하게 역사학을 전공하는 필자의 시각에서 분류한 것으로 일반적인 계열별 통계와는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

『三國志』·『三國史記』의 「州胡」·「耽羅國」研究)가 발표되었다. 다시 몇 년의 간격을 두고 제10집(2003년 발간)에 한국사 및 역사교육 분야의 두 편 논문(진영일, 「고려기 탐라 성주 고찰」 / 한기영,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이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복간호인 제12집에서 한국사 및 동양사 분야에서 두 편의 연구노트(전영준, 「조선 전기 제주 지역의 제지수공업 존재확인을 위한 試論」 / 정창원, 「秦統一 以前時期 水利사업의 性格」)가 게재되었다.

이 외에 역사학 분야에 근접한 글도 몇 편 보인다. 안창범이 제1집(1995년 발간)에 「東學의 外來 道·佛·儒 三教收容說 批判」, 제3집(1997년 발간)에 「神仙道와 益山 金馬의 廢彌勒寺」, 제7집(2000년 발간)에 「桓雄天皇의 先天開闢과 實在的 根據」 등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제4집(1998년 발간)에 신행철의 「서학에 대한 후기 조선인들의 대응 -진산사건에 관련하여」라는 논문이 수록된 바 있다.

상술한 내용에 의하자면 『인문학연구』 창간호부터 복간호에 게재된 역사학관련 분야의 논문은 양적인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연구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현재의 연구 트렌드인 학제간을 아우르는 융복합적인 시각을 가진 연구 역시 도출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인문학연구자들이 공통의 연구재료를 가지고, 융복합적인 학제간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자.

(2)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문집자료의 정리와 활용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중국의 한자를 도입하여 생활하였고,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諸 분야의 기록을 한자로 남겼다. 그 결과 전통시대 기록된 개인적 문집도 한문 문장으로 남기게

되었다.³¹⁾ 한문으로 기록해 놓은 조상들의 문집은 개인의 기록 이면서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학적·역사학적·문헌학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문집은 한국인의 사회·생활·역사·문학·철학 등의 의식이 잘 드러난 생생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문집자료의 수집과 색인작업을 거쳐 지금까지 나온 관련서적으로는 尹南漢의 『韓國文集記事綜覽類別索引-雜著記說類記事索引』(한국정신문화연구원 刊, 1982, 4·6배판, 2373면)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집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한 사업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위의 책조차도 전 10권으로 간행되어야 할 『韓國文集記事綜覽類別索引』의 첫 책에 지나지 않았고,³²⁾ 후속작업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³³⁾

선조들이 남긴 문집은 대부분 전국의 도서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세월의 흐름으로 인한 破冊이 많은 이유로 도서의 落帙과 마모

-
- 31) 金相根, 「한국의 한자수용 역사와 방법」, 『中國語文學』 제17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90, 281-284쪽.
- 32) 김철준, 「윤남한 편, 韓國文集記事綜覽類別索引-雜著記說類記事索引」, 『정신문화연구』 통권 제1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82.11, 120쪽 ; Chang-won JUNG, "The pioneer of Korean anthology index work Yoon Namhan and 雜著記說類記事索引", *From Digital Content to Knowledge Asset PNC 2010*,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2010, 84-85쪽.
- 33) 권중달, 『역사를 통한 세상보기』, 소이연, 2005, 236-237쪽. 『韓國文集記事綜覽類別索引』의 작업과정 결과 역대한민국인문집 5,000여 종에 대한 기초조사, 목록조사가 이루어진 채록카드는 7만 4천매가 완성되었고, 그에 대한 교정 작업은 3만 7천매를 남겨두고 있다. 당초 목표했던 항목으로는 100만 항목에 달하며, 이들 카드는故 윤남한 교수의 제자이자 색인의 共編者였던 권중달 교수가 소장하고 있었다. 권중달 교수에 의하면 이 작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현대화된 장비와 충분한 연구비를 가지고도 약 1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현재 이 소장자료들은 권중달교수로부터 본 보고서의 필자 중 일인인 정창원에 게로 이관되어 제주대학교 사학과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

가 진행되기 전에 목록색인과 문집의 디지털화를 완성하여 그 가치와 보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목록색인이 완성되면 문집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연구자들은 시간과 정력을 덜 낭비하고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동아시아 연구에 주력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동아시아학 연구를 위한 주요 자료로써 한국에서 출간되어진 漢籍자료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부 대학의 경우 이들 자료의 정리작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³⁴⁾ 한국학 문집의 목록 색인은 조상들의 사상과 정신적 유산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문화 민족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조상들의 문집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며 그 가치를 자리매김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이며, 그 결과물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자산이 될 것이다. 6,000종이 넘는 우리 조상들의 문집을 이제 드러내 알릴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작업은 어느 한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문집의 수집만 해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거기에 문집 하나하나의 표제를 찾고 이를 입력하는데도 막대한 인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학문집의 정리는 동아시아학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작업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34)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Library Newsletter, Issue No. 13, May 2007(<http://www.cityu.edu.hk/lib/about/newsletter/>)에 의하면 홍콩시티대학교(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도서관(Run Run Shaw Library)은 『韓國歷代文集叢書』와 『燕行錄全集』을 활용한 동아시아 문화교류 연구에 착수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韓國歷代文集叢書』의 색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제주대학교 역시 이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한라일보』, 2010년 5월 15일, 「제주대 박물관 국제학술 교류」기사참조). 협정체결당시의 제주대학측 기관은 박물관 및 사학과였으나, 전문인력의 확보가 절실하였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인문과학연구소 역시 이 작업에 주체로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인문과학연구소에 소속된 인문학 연구자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문집색인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있다.³⁵⁾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대학은 홍콩시태대학 및 미국 UC Berkeley 대학 간의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학술교류협력의 주요 안건은 『한국역대문집총서』(경인문화사출판/3,000권)의 공동 색인작업으로 주요참여기관은 홍콩시태대학교 도서관·중국문화중심·번역 및 언어학과에서 색인의 한문입력에 대한 주요 소요경비와 작업을 담당하고, 제주대학교 박물관, 사학과,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한문색인의 한글화 작업 및 학술지원을 담당하며, UC Berkeley 대학의 동아시아도서관에서는 한글색인에 대한 영문로마니제이션을 입력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중국어·영어·한글을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색인작업은 향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에 있으며³⁶⁾, 문집총서 PDF원문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기도 하다.

각 참여기관의 회의를 거쳐 처음 제시되었던 인터넷 검색 화면의 샘플은 <그림 1> 및 <그림 2>과 같다. 이러한 개발 단계를 거쳐, 현재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문집색인 및 원문검색 사이트의 화면구성은 <그림 3> 및 <그림 4>와 같다.

35) 정창원, 앞의 논문, 433-4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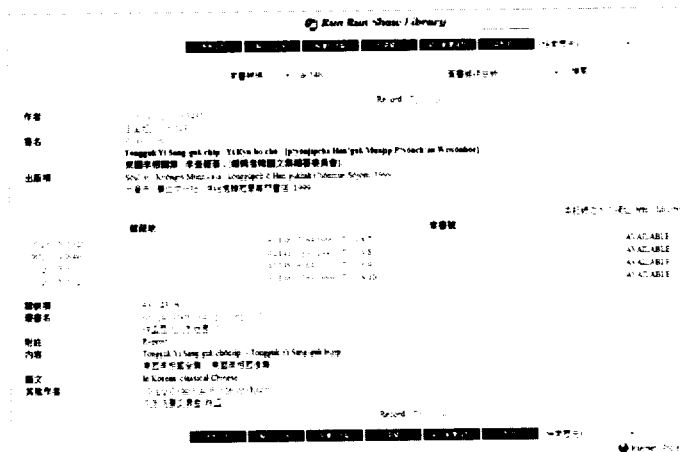
36) 기 진행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009년 12월, 2010년 2월·5월·12월, 2011년 7월 방문. 기본적인 협의 및 작업진행상황에 대한 회의를 진행.
- 주요계약은 시태대학과 경인문화사가 체결. 학술적 부분에 대해서 시태대학을 메인으로 하여 제주대학교 및 UC Berkeley와 공동 작업에 진행에 대한 MOU를 체결.
- 2012년 4월 현재, 학술정보제공업체인 한국학미디어센터에서 색인프로그램 개발을 완료. 이를 기초로 홍콩시태대학 도서관에서 한문 입력작업 후 제주대학교에서 한글입력. UC Berkeley에서는 한글에 대한 영문 로마니제이션 작업. 현재까지 색인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문부분은 입력을 완료. 한글부분은 약 1500권의 분량이 입력완료 되었고 계속 업데이트 중. 원문파일 역시 전체 3000권이 준비된 상태이며 현재 베타서비스 상태로 약 1000권에 대한 원문보기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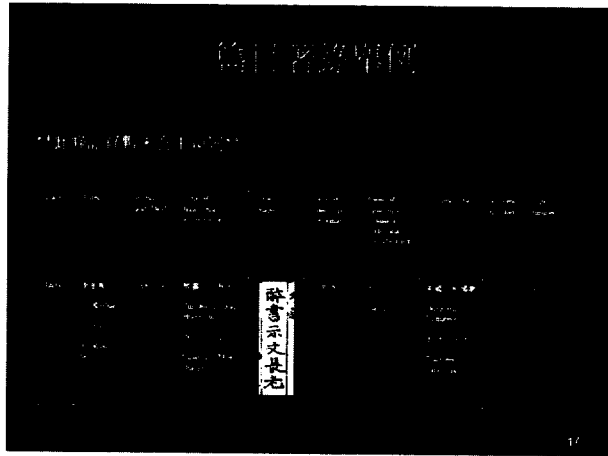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문집 정리와 발간사업에서 최대 과제는 종합목록(綜合目錄)을 만드는 일이다. 국내외에 산재한 문집을 조사해 종합목록을 만드는 일은 문집 정리와 간행사업의 기본 토대이지만 단시일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서 장기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는 급속한 미디어의 발전에 밀려서 종이책이 점점 줄어들고 콘텐츠를 이용한 전자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종이책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학문에 정진하고, 학술이나 인문학을 하는 분야에서는 더욱 자료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물론 시대 상황은 무시할 수 없다. 관청과 기관에서는 자체 구축한 콘텐츠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국립중앙도서관·한국학연구원 및 한국고전번역원 등이 있고 이외에도 여러 기관 및 단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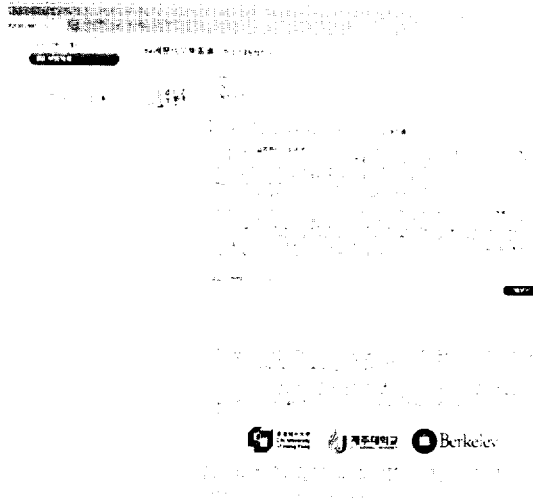
<그림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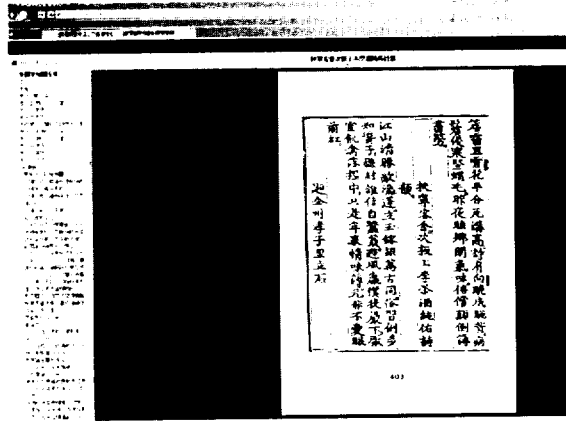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그림 4 >



4. 지역 인문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지역의 열악한 연구환경에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는 바로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대학의 본래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문학 관련 연구 학문분야를 총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있는 곳이 바로 대학 내 인문학 관련 연구소이다.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 우선 인문학 관련 연구소의 지원이 절실하다³⁷⁾.

1) 예산지원

대학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겨우 1회의 학술지 발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부족한 예산으로 학술대회 개최는 현실적으

37) 이하 연구소 지원관한 내용은 제주대학교의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무 전산용품 등 구입 등 연구소 운영이 필요한 경비는 거의 배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의 기본적인 역할이 교육과 연구에 있다면 연구소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의 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2) 운영 인력

대부분의 연구소에는 연구소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나 조교가 없다. 연구소장이나 간사 또는 소장이 소속된 학과의 조교가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 부담이 많고 각종 행정처리가 늦어지거나 사업진행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 연구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연구조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 따라서 연구소 조교의 재정적 지원 또는 기간제 학사보조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3) 연구소 지원부서

단과대학과 연결되어 있는 연구소는 단과대 행정실에 업무 부담이 상당한데, 현재 산학협력단에 연구소 관리부서가 설치되어 연구소를 지원한다고는 하나 담당자의 겸무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연구소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없다. 연구소의 행정상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본부에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원부서가 필요하다.

4) 학술행사

대다수의 연구소의 예산이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의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다. 이중 경직성 경비인 학술지 인쇄비를 제외하며 200만원에서 많아야 300만원 미만으로 학술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실정이다. 1회의 국내학술대회도 개최하기에 턱없이 부족

한 예산이며, 더 더욱 국제학술대회는 개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연구소의 연구발표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술행사를 지원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술발표를 위해 특별사업을 계획하거나 산학협력단을 통해 학술행사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이 절실하다.

5) 학술지 및 저서 발간

2011년 12월 한국연구재단에는 후보등재지 신청이나 등재지 선정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나 등재지와 등재후보지 제도는 2014년까지는 유지되고 향후개선제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등재(후보)지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우리대학교의 연구역량 제고와 교수들의 논문투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소의 학술지가 원만히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연구재단에서 향후 발표될 학술지에 관한 사업에 선정되려면 현재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재(후보)지 지원 사업을 학술지발간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향후의 연구재단의 정책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소 논문의 투고가 활성화 되려면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논문투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한다. 논문의 적극적인 투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논문 원고비와 심사비 등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교수업적평가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학교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하려면 교수(특히 정교수)들의 적극적인 논문발표가 필요하다. 교수업적평가제에 연구소 게재논문의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한다면 연구소 논문의 활성화는 물론 교내외 정년을 보장받은 정교수들의 논문 투고를 유도할 수 있다. 논문집 발간이 활성화되어 논문게재수가 증가하면 우리 학교의 연구경쟁력은 자연히 높아

질 것이다.

6) 연구비

연구소가 활성화하려면 연구소 목적에 따른 과제 수행이 필수적이다. 2002년 연구소 통합 전에는 각 연구소마다 연구과제비가 산정되어 있어 나름대로 최소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향후 각 연구소의 본연의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연구과제비 산정이 필요하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대학부설 연구소를 활성화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 있다³⁸⁾.

- 가. 대학예산의 일정비율의 부설연구소 의무배정
- 나. 대학 중점 연구소의 지원 확대 개편
- 다.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력 지수를 대학 평가지표 반영
- 라. 대학 부설연구소에 대한 운영 지원 강화
- 마.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전담교수 채용 지원
- 바. 대학 내 연구소 관리전담기구의 지원확대
- 사. 대학 부설연구소 관리기구 및 협의회 설치 운영

5. 결 론

제주지역의 어문학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제주어 분야이다. 언어는 모든 학문을 이해하는 중심되며 제주어의 이해는 곧 제주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제주어와 관계있는 몽골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상호 비교하는 종합적 연구는 제주라는 지역을 넘어

38) 연구보고서 : 박종구의, 대학연구력 제고를 위한 대학부설연구소 운영 지원 체계 개선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11.9, 168-178쪽

동아시아의 문화적 교류를 밝히는데 주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다음 제주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고전자료에 대한 발굴 정리와 기초적인 해석이 절실하다. 이런 기초작업 선행되어야만 전문적인 연구와 이를 응용·활용한 문화컨텐츠 창조가 가능하다. 제주신화는 제주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제주의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요소이다. 제주신화 하나하나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학술적인 진일보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문학의 기초연구를 통해 얻어진 성과로 제주지역을 바로 알고 제주문화의 인식이 증대시키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자료의 정리와 해석을 통해 스토리텔링과 문화컨텐츠의 생산이 필요하다. 시 낭송회, 소규모 공연 고전 운동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인문학 전파가 필요하다.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고 대중에게 찾아가는 인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역사·철학 등의 전문가 해설가 등이 연합하여 강연 체험 현장답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된다.

한편, 제주지역의 철학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보편학문인 철학과 지역학의 담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에 철학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탈중심성 논리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성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말하는 탈중심성은 이중적이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중심성에 자리할 수 밖에 없지만 관계적 존재로서 타자의 존재와 타자의 중심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일원성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다원성을 수용할 수 있고, 나의 중심성을 보면서 타자의 중심성을 수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열린 관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 의 중심성에서는 물론 타자의 중심성에서도 벗어나는 다원적 탈

중심성이 지향할 때 '탈경계'의 현장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따라 제주지역의 철학 연구는 우선 철학의 중심성을 발견하고 구체화시키면서, 학제간 연계를 통해 타학제의 중심성을 인정하고 다원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학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제주의 로컬리티를 확립하고, 그것을 세계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그것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론에서는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각 분과를 지역학을 토대로 한 국학·동아시아학·유럽학·영미학으로 나누기를 제언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탐라문화연구소와 제주도학회 등에서 연구되었던 결과물을 비교 분석 종합함으로써 제주의 로컬리티를 찾고, 그것이 국학과 동아시아학, 유럽학, 영미학 등과 열린 관계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런 '열린 관계'와 '탈경계'의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한국역대문집총서 목록 색인사업이다. 한국 역대문집총서 목록이 홍콩시대학교(City University of Hong Kong)와 UC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 동시에 한자·한글·영문으로 입력 전산화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학제간 연구 및 글로컬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간된 종이책은 콘텐츠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시범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한국역대문집총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현재 제주의 인문학자들이 학제간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집의 중요성이 확인될수록 문집류의 조사와 영인작업, 나아가 번역과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작업은 인문학의 전문적 영

역을 풍부하게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대중화와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문집의 정리와 영인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 셈이다.

특히 문집에 대한 색인작업·목록작업·해제작업·영인작업·국역작업 등은 동아시아학의 정체성을 재정립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시도 없이는 동아시아학의 올바른 정립은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문집류에 대한 분류작업과 색인화 작업은 동아시아학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화를 이룩하는데도 필수적이며 우리 인문과학연구소가 중추를 담당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금석자료의 활용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되어야 할 학제간 연구의 또 다른 중요분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방선문에 남겨진 시대인들의 인문학 정신”을 조명한다면 남겨진 시들에 대한 분석, 이것을 남긴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접근 및 당시대 지식인들의 철학적 사유형태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인문학 정신의 근원을 탐색하고 우리 제주가 가야할 방향들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 남겨진 금석자료의 수집과 체계적인 자료정리를 위해서는 인문학연구소가 주축이 된 각 전공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향후 공동연구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耽羅文化』 창간호-제4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인문학연구』 창간호-제12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Chang-won JUNG, "The pioneer of Korean anthology index work Yoon Namhan and 雜著記說類記事索引", From Digital Content to Knowledge Asset PNC 2010,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2010.
- Falk Pingel 지음, 한운석 옮김, 『교과서 연구와 수정에 관한 유네스코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2010.
- 권중달, 『역사를 통한 세상보기』, 소이연, 2005.
- 金相根, 「한국의 한자수용 역사와 방법」, 『中國語文學』 제17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90.
- 金錫翼 저 오문복외 5인 역, 『濟州 속의 耽羅 심재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김석수, 「구체적 보편성과 지방, 그리고 창조학으로서의 인문학」, 『사회와 철학』 제8호, 사회와 철학연구회, 2004.
- 김철준, 「윤남한 편, 韓國文集記事綜覽類別索引 -雜著記說類記事索引-」, 『정신문화연구』 통권 제1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82.
- 김치완, 「석주명의 제주도 자료에 비친 제주문화 -『제주도수필집』에 나타난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환경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석주명 선생 탄생 103주년 기념 학술대회자료집 :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을 조명하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김치완,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박규택, 「로컬리티 연구의 동향과 주요 쟁점」,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박종구의, 「대학연구력 제고를 위한 대학부설연구소 운영지원 체제 개선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11. 9.
- 신승운, 「한국문집정리의 측면에서 본 『退溪學資料叢書』 간행의 의미」, 『退溪學』 제17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 양영수, 『세계 속의 제주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유철인, 「지역연구와 濟州學 :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濟州島研究』 제13집, 濟州學會, 1996.
- 정창원, 「한국학연구와 문집정리의 필요성」, 『한국학연구』 제2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 조성윤, 「지역 연구 모델로서의 제주학의 발전 방향 : 『탐라문화』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33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최병길 외,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濟州島研究』 제15집, 濟州學會, 1998.
- 한국사학사학회 편, 『21세기 역사학 길잡이』, 경인문화사, 2010.
- 허남춘, 『제주도본풀이와 주변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현평효 · 강영봉,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제주대학교 국어연구원, 2012.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Library Newsletter, Issue No. 13, May 2007(<http://www.cityu.edu.hk/lib/about/newsletter/>)
-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2008. 12. 3. 규칙 제 808호.
- 『한라일보』, 2010년 5월 15일, 「제주대 박물관 국제학술 교류」 기사.

<中文題要>

透過跨學科合作之濟州地區的人文學研究

李滢鎬 / 鄭相元 / 金治完

在濟州地區的人文學的研究趨向， 于今着重文學與民俗學方面。 此原因就是將濟州島的地域特性特定了濟州的固有性之研究比較多。 在於濟州地區瘠薄地研究環境之下， 雖然這種研究貢獻確立濟州文化的特性， 但是還需要在超越邊界的時代觀點上綜合的再檢討。 因此， 考慮迎接六十年校慶的據點國立大學的位相， 在融合的側面上濟州大學的研究所應該要檢討濟州的現在跟未來的展望。

在濟州地域留下地方志·文集·金石文等擁有時代背景的資料， 而且利用該資料可以接近歷史·文學·哲學方面的人文學研究。 所以對於這些資料需要人文學各分野的跨學研究。 特別關於濟州地域敘述的地方史資料， 應當超擢單純史料的價值而多樣的研究角度來探討。 本研究透過文獻調查與既有研究的分析， 在人文學的立場診斷濟州的現在， 提出未來研究的指向標。

地域大學是培養地域人才而支援地區研究的基础設施， 而且這就是固屬大學的功能。 不過總括人文學關聯學問分野會運用程序的機構就是校內的人文學研究所。 從而要实现校本部支援人文學方面研究所的方案， 在此基礎上， 需要以人文學研究所為主軸聚集人文學研究者的意見， 而且更要開發為向後共同研究的多樣的主題。

关键词： 濟州的固有性之研究， 人文學， 跨學研究， 人文學研究所， 共同研究的多樣的主題

논문투고일: 2012년 6월 15일 / 논문수정일: 2012년 7월 16일 / 게재확정일: 2012년 7월 20일